

#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개소준비 박차

### 오는 10월말 목표...미래 정원산업 거점도시 역할 화훼소상공인 취급 식물·자재 소매 판매 양기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정원산업을 견인할 '순천만가든마켓'을 오는 10월말 개소를 목표로 건립공사에 한창이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박람회 사후평가분석을 통해 정원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역 내 기대수요가 높아지고, 특히 정원수 생산자 단체의 유통단지 신설에 대해 꾸준한 요구로 2017년 산림청 국비 건의사업을 통해 정원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순천만가든마켓'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순천만가든마켓은 크게 정원수공판장과 정원자재종합유통전시판매장 2개의 기능을 주축으로 미래 순천을 정원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갈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전국 정원수 생산의 32%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로 농가수가 800여 농가에 이르러 정원수 생산에 따른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시는 순천만가든마켓을 통해 정원수의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원수 경매시스템을 도입해 시장가격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순천형 정원수 표준화 모델개발, 정원수 품질인증제 도입, 상품종 육성·재배·판매함으로써 전국적인 정원수 유통의 종합 정보센터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원자재종합 유통전시판매장에서는 국내외 정원 자재, 도구, 용품, 가구는 물론 모델정원 전시, 설계 시공, 정원 관리 등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순천만가든마켓 건립 후 지역



내 화훼소상공인(꽃집)의 생계위협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원산업 관계자 간 상생을 위해 순천만가든마켓 정원자재종합 유통전시판매장에서는 화훼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식물·자재에 대해 소매판매는 양기로 결정했다.

시는 최근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원 진흥

사업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굴뚝 없는 정원산업을 육성해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원확산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정원박람회 특별법에서도 언급된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순천만가든마켓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고흥군, 여성 친화형 안심화장실 조성

### 공중화장실 여성안심 거울(37개소)비상벨(57대) 등 설치

고흥군은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 거울과 비상벨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안심 거울은 화장실 출입문에 부착하여 거울을 통해 보행자의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안심 비상벨은 위급 상황 시 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에 적색불이 켜지며 화장실의 위치를 파악해 가까운 파출소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112) 연계형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비상벨 설치 안내 문구는 화장실 입구에 여성 안심 화장실을 확



실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 감지기는 경찰서, 읍면사무소 등에 구입·배부(30대) 하

였고, 100원 위생용품 자판기는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내 1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며,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광양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위풍당당 엄마가 간다!' 실시

광양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은 지난 7일 경력단절 여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음식 제조기술 전수를 위한 '위풍당당 엄마가 간다!' 사업을 시작했다.

'위풍당당 엄마가 간다!' 사업은 광양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백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역 어르신들께 전통장(장, 고추장)을 직접 담그는 전통음식 제조기술을 배우고, 지역특산물인 매실과 새싹삼을 활용한 특색 있는 전통 장류를

개발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총 4회에 걸쳐 7~8월 진행될 예정이며, 만들어진 전통 장은 지역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2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안은영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대표는 "전통음식 제조기술을 배우는 교육을 통해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광양=심종섭기자

## 순천시 왕조1동, 정원조성 구슬땀

### 봉화2길 중심 10여종 다양한 꽃·나무 식재

순천시 왕조1동 곳곳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물들어가고 있다.

순천시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는 생활주변에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을 찾아 지역 기관·단체들의 참여 속에 다양한 정원을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왕조1동 통장협의회(회장 박진숙)는 순천시의 대표상권인 봉화2길(시계탑사거리~신협사거리)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화분을 재정비하고 일일초, 황금사철, 꽃망초나무 등 10여종의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다.

화분가꾸기에는 68명의 통장과 15명의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순천대 학생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해 화분도색과 순천시 마스코트(루미와 뽕이)를 그려내 그 의미를 더했다.

평소 봉화2길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탓에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던 거리였지만 정비 후에는 담배꽂이와 생활쓰레기가 감소하고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표정이 밝아졌으며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왕조1동 주민자치회(회장 이흥탁)에서도 동산여중 뒷길 화단에 계절 꽃을 식재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꽃길을 조성하였고, 시민정원추진단(단장 박주인)은 신월마을 내에 오랫동안 방치된 부서진 화단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꽃과 수목을 식재하여 정원을 만들었다.

한편 순천시 왕조1동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주민세 환원사업을 통해 매년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정원을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 보성군, 농림부와 농촌협약 475억 원 체결

보성군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까지 농촌협약에 4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성군은 2020년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농촌협약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작년 10월부터 기본 현황 정비, 주민 설문조사, 각종 데이터 분석 등을 진행해 '농촌 공간 전략 계획'과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비는 지역의 계층과,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동부생활권(별교읍·조성면·문덕면·겸백면·울어면)에 집중 투자되며, '365생활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 365 생활권은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먼저 이번 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타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